

율법을 전해 준 모세의 삶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히11:23-29

요즘 히브리서 11-12장을 자주 본다. 11:1-2, 대단히 귀한 말씀
기독교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을 맺는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는 한 가지를 일관되게 증명한다. 구원은 처음부터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그에 부합하는 행위로 드러난다는 것이
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좋은 희생 예물을 드렸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믿음으로 보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며 죽었다.

11:13,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 우리는 여기에 인생을 베풀어 온 사람들이다.

오늘 < >

히11:23-29 본문은 이제 창세기를 떠나 출애굽기로 들어간다. 그리고 한 인물을 보여 준다. 모세이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이 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누구인가? 율법을 전해 준 사람이다. 모세오경, 모세의
율법이라는 말이 보여 주듯, 그들에게 모세는 율법주의의 원조요 모형이다.

모세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 848회, 이 중 신약 80회, 예수님이 983, 아브라함 231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에 의해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왔다.

구약의 율법 수여 이후 유대인들에게는 모세가 가장 중요한 인물

유대교의 변천과 타락, 믿음이 종교화가 되면서 613개 율법의 규정들(248개의 적극적 명령("하라")과
365개의 금지 명령("하지 말라")을 만들고 그것들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착각 율법주의
행위 구원, **롬10:1-3**, 이 장도 그리스도와 모세 비교 5절 이후

히브리서는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과 거기서 벗어났으나 아직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자들에게 주는 말씀
바울은 히3:1-6에서 모세에 대해 설명한 뒤 11장에서 그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다고 증언한다.

이것은 의도적인 충격 메시지이다. 만일 모세조차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모든 시도는 처음부터 잘못된 길이라는 뜻이다.

나는 맥아더 설교를 들을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하다. 차를 타고다니며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 듣고 나중을
위해 메모도 한다. 오늘도 그의 설교 구조를 빌려서 설교한다.

훌륭한 목사를 주신 것에 감사한다.

오늘 본문이 모세의 믿음을 보여 주는 방식은 독특하다. 25절에는 '택한다'(choosing)는 말이 나온다.

옳은 것, 그른 것 중 옳은 것을 선택한다.

모세의 믿음은 추상적인 신뢰가 아니라 구체적인 선택으로 나타난다.

선택을 하면 거부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믿음의 삶에 필요한 것, 매사에 바르게 선택하는 것이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그의 믿음의 삶을 보려 한다.

모세가 믿음으로 거부한 것 네 가지(24-27절)

모세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세 가지(23, 28-29절)이다.

배경 — 모세는 어떻게 왕궁에 있었는가

본문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2장의 배경을 알아야 한다.

파라오는 히브리 사내아이들을 죽이라는 명을 내렸다. 모세의 부모 아르람과 요게벳은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진흙과 역청을 바른 갈대 상자(궤)에 아기를 넣어 나일강의
부들 사이에 두었다(2:3). 그 상자는 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나온 곳으로 흘러갔고, 공주는
아이를 발견하여 불쌍히 여겼다(2:5-6).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곁에서 지켜보다가 나서서, 히브리
여인에게 아이를 맡겨 젖을 먹이게 하자고 제안하였다. 아론은 모세보다 세 살 더 많았고 미리암은

적어도 7-10살 정도는 더 많지 않았을까? 추측됨,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본다.
그렇게 모세는 자기 어머니의 손에서 길러지다가, 어느 정도 자란 후 공식적으로 파라오의 딸의 아들로 왕궁에 들어갔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모세가 친모 요게벳의 손에서 자란 기간이 짧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무엇을 배웠겠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이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진 것, 요셉이 죽으면서까지 붙들었던 소망, 곧 하나님이 반드시 그 백성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소망을 배웠을 것이다. 모세는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긴 사람이었다. 이 정도를 이해하려면 아마 12살 정도 모세는 왕궁으로 들어가 사도행전 7장 22절이 말하는 대로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이 강력하였다. 크리스천들이 세상 학문과 일에도 뛰어나야 한다.

출애굽기 2장 11절은 "그 당시에 모세가 장성한 뒤"라고 말하며 인생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 이때까지의 기간은 사십 년이다. 이 사십 년 동안 모세 안에서는 두 가지가 부딪히고 있었다. 어릴 때 배운 하나님의 약속과 왕궁에서 배운 이집트의 지혜와 영광이다. 과연 어느 쪽이 그의 마음을 차지할 것인가. 본문은 그 답을 보여 준다.

모세는 평생을 바른 것을 선택하고 그른 것을 거부하며 살았다.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

I. 모세가 믿음으로 거부한 것 (24-27절)

1. 모세는 믿음으로 세상의 명예를 거부하였다 (24절)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생각해 보라. 모세가 차지한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그는 당대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자였다. 대다수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영예, 모든 권력, 모든 안락이 그의 것이었다. 사람들이 평생을 걸고 추구하는 것을 그는 이미 손에 쥐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거절하였다. 단순히 잃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려놓았다.

사도행전 7장 23-25절을 보면 그 거절의 순간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모세는 마흔 살이 되었을 때 자기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가 보았고, 자기 동포 한 사람이 부당하게 학대받는 것을 보고 그를 위해 원수를 갚아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다. 이때 그는 이미 자기 백성이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본문은 말한다(25절).

모세가 왕궁의 명예를 내려놓은 것은 우발적인 사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인식한 후에 내린 선택의 결단이었다.

여기서 묻고 싶다.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직장에서의 지위, 사람들의 인정, 사회에서의 명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충돌할 때**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하겠는가? 모세는 보이는 왕관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약속을 택하였다.

2. 모세는 믿음으로 죄의 쾌락들을 거부하였다 (25절)

25절.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왕궁에는 모세가 원하는 모든 즐거움이 있었다. 그것을 제한할 사람이 없었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누릴 수 있는 향락이 그 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였다." 왕궁의 즐거움보다 고난을 선택한 것이다. 왜 그런가? 본문은 죄의 쾌락들을 "잠시"라는 단어로 규정한다. 죄의 쾌락들은 잠시 우리를 즐겁게 한다. 짧다. 그 짧음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라. 그는 밧세바와 간음하기 전에 그 죄가 가져올 결과를 계산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짧은 즐거움이 지나간 후에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심한 죄책감, 살인, 아이의 죽음, 자기 아들의 반역이었다. 죄의 쾌락들은 빠르게 지나가지만 그 흔적은 오래 남는다.

모세는 영원한 기쁨을 미리 내다보았다. 그는 지금의 만족이나, 영원한 보상이냐를 두고 영원을 선택하였다. 우리에게도 매주, 매일 비슷한 선택이 주어진다. 지금 누릴 수 있는 것과, 나중에 받을 더 큰 것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히11:6**

3. 모세는 믿음으로 세상의 재물을 거부하였다 (26절)

26절.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여기다로 번역된 동사 esteem은 "높이 평가한다, 존중히 여긴다"를 뜻한다. 이것은 신중하게 판단하고 계산한 결과이다. 모세는 감정적으로 즉흥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 본 뒤에 결론을 내렸다.

이 결정 뒤로 그가 살면서 받은 치욕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의 치욕,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받으신 치욕과 같은 종류의 수모이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지만, 장차 오실 약속된 분, 메시아를 향한 소망 안에서 살았고, 그 소망과 곁을 같이하는 고난을 자기 몫으로 받아들였다.

참된 믿음은 단순히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것을 내려놓는 계산을 하는 것이다. 모세는 이집트의 보화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분의 백성과 함께 받는 치욕이 그것보다 크다고 결론지었다. 주님의 보상이 영원하고 더 크기 때문에

4. 모세는 믿음으로 세상의 압박과 두려움을 거부하였다 (27절)

27절.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같이 하면서 견디어 냈느니라.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은 곧 파라오에게 알려질 일이었다. 모세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그는 결국 미디안으로 도망하여 사십 년을 살아야 했다.

그런데 "이집트를 버렸다"의 버렸다(forsake)는 말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모세가 이집트의 모든 것을 완전히 단념하고 포기한 것을 말한다. 모세는 이집트가 자기 인생에 행사하던 힘, 파라오가 자기에게 행사하던 권세를 마음으로부터 부정하고 거부하였다.

이 점에서 모세는 앞선 믿음의 사람들과 다르다. 아브라함은 파라오를 두려워하여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다. 이삭도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야곱은 라반을 두려워하여 도망쳤다.

그런데 모세는 파라오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같이 하면서 견디어 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는 사십 년 후 출애굽기 5장에서 아무 군대도 무기도 없이 파라오의 궁전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요구할 수 있었다. 그는 보이는 권력자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다. 우리가 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II. 모세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23, 28-29절)

이제 믿음이 받아들인 것을 보자.

1.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였다 (23절)

23절.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에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이는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여기서 "특이하다"는 단어를 가볍게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proper).

출2:2 준수한 아이, 행7:20, 심히 아름다웠다.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이 예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므람과 요게벳이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숨긴 이유는 단순히 부모로서의 애정이 아니라, 그 아이가 특별한 아이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이 부모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였다.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다 알지 못했지만, 그 계획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신뢰하고 순종하였다. 그 신뢰가 있었기에 그들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크게 보았다.

이 믿음은 부모를 통해 모세에게 그대로 이어졌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나아가 부당한 일을 보고 즉각 행동한 것, 그리고 다음 날 자기 백성 사이에서 마치 재판자처럼 행동한 것은 자신에게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그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2.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였다 (28절)

28절. "믿음을 통해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으니 이것은 처음 난 것들을 파멸시킨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집트에 내린 마지막 재앙은 처음 난 모든 것을 치는 재앙이었다. 그 재앙을 피할 방법은 단 하나, 어린양의 피를 문의 기둥들과 문 위 상인방에 바르는 것이었다.

모세는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다른 방법을 고안하지 않았다. 더 안전해 보이는 방법,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방법을 찾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정하신 길은 단 하나이다. 하나님의 어린양 그리스도의 피이다. 우리는 그 길이 이상해 보인다고 다른 길을 찾을 필요가 없다.

모세가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를 그대로 믿고 의지하면 된다.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3.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다 (29절)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마른땅을 건너듯 홍해를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고."

출14장, 이스라엘 백성은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가,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있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출애굽기 14장 10-11절은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에게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 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이후로는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잠잠히 있을지니라"(**출 14:13-14**)라고 말한다.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을 보라"고 명령한 것, 이것은 엄청난 믿음이다. 자기 눈에 보이는 파라오의 군대와 바다 앞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백성을 이끌고 나아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백성은 마른 땅처럼 지나갔다.

맺는 말

바울의 요점: 유대인들이 가장 존중히 여기는 모세의 이야기는 결국 율법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이다.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의 원조로 여겼던 그 사람 모세는 보이는 것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이었다.

율법의 용도

갈2:16, 갈3:21-22, 24-25: 율법은 죄를 알려 주는 거울, 그러나 구원하지 못한다.

지금과 같은 불신의 시대에

1.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천국을 기대하며 사는 것은 인내로 경주 길을 달리는 것이다. 견디어 내야 한다.

롬2:6-8, 비른 선택

2. 성경 신자로 성경 그대로 믿으며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치욕을 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경 보존 약속, 킹제임스 성경, 침례, 목사와 집사, 자치적인 독립 교회, 영혼의 자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세상의 명예인가, 즐거움인가, 재물인가, 두려움인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충동할 때**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하겠는가? 모세는 보이는 왕관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약속을 택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

그리스도의 피를 그대로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가?

모세는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며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 나아가자(히13:13).

모세의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바란다.